

◇ 特別論文 ◇      나의 人生觀

人間哲學 序想 【5】    人間的인 哲學

朴致祐

人間은 實로 矛盾 그것이다. 矛盾없는 人間은 人間이 아니다. 이 人間이 內包한 矛盾은 실로 宿命적인 矛盾이다. 人間의 存在는 矛盾의 兩極의 絶對的인 鬪爭 그것이다. 그가 內包한 矛盾이 언제나 一者가 他者에게 해소됨이 없이 싸우고 잇는 矛盾이라는 이 점때문에 人間은 훌륭히도 人間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人間이 가진 이 根本的인 矛盾은 그러므로 도학 자적 견해와 같이 「저주할 현실」이 아니라 實로 「감사할 선물」인 것이다. 이것 없이는 人間은 自身 人間됨을 포기하지 아니차 못하겠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道學者的 도덕 이전의 道德 선악 이후의 善惡을 굳세게 肯定하여야만 된다. 그러면 道德以前의 道德, 善惡以前의 善惡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이것을 나의 말하는바 人間다운 人間이 가진 근원적인 鬪爭性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 라고 믿는다. 그러면 人間다운 人間이란 어떠한 人間일까?

나의 말하는 人間다운 人間은 眞偽, 善惡, 美醜 等 모-든 人間的인 矛盾을 한 몸에 부동켜안고 언제나 自身싸우고잇는 싸움으로의 인간이다. 이러한 人間이 人間다운 人間일 뿐 아니라, 人間은 소호도 이 以上の 존재가 되어야할 아모런 필요도 없는 것이다.

人間다운 人間은 이같이 矛盾의 人이며, 따라서 싸움의 人이므로 그는 언제나 行動의 人이다. 무릇 「行하는것」 卽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의 生命이다. 「行한다는것」이것을 中止하는 순간은 곧 죽는 것 卽 싸움의 中止를 意味함으로 써다. 그러므로 이에 잇어서 最高의 善은 다못 「한다는 것」 그것뿐이며, 따라서 第一次的이고 根源的인 惡은 「함이 없는 것」 그것이다. 무엇을 하였는가 라 던지 따라서 行한 結果가 惡인가 善인가는 第二次的인 問題다. 그것은 함이 없이는 받을 조차 없을 換急하면 한 다음에래야 받을 수 잇을 機會가 制度가 주는 評點에 지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는 善惡의 彼岸에 서는 超人이 아니라 언제나 善惡의 此岸에 서려는 人間 그것이다. 이와

같은 前道德的(沒道德的이 아니다)人間에 依하여서만 可能할것이다. 우리는 現下의 切迫한

危機의 克服을 道學者的인 人間에 바랄 수는 없으리라. 그는 너무나 清白한 너무나 純粹한 말하자면 여과된 人間에 지내지 안키때문이다. 그는 純粹하기 때문에 弱한-모래(砂)를 섞지 안키 때문에 弱한 세멘트의 가루(粉)와도 같은 人間임으로써다.

우리는 우리가 矛盾의 人間, 싸움의 人間이란 이 점을 오히려 기운차게 자랑 하여야만 한다. 나는 나 自身이 개(犬)나 도야지(豚)가 아니엇든 것을 創造者에게 감사할뿐만 아니라 그와 同時에 人間性을 去勞 당한 초인, 성자가 아니엇음도 못지 한케 고마워한다. 人間性의 去勞-얼마나 悲慘한 현실일가 나는 울고, 웃고, 노하며 싸울 줄 아는 自身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